

2026년 8월 13일(목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13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산업정책과 미래형자동차항공팀

유 형 : 공모 선정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☐ 사진없음 ☒

공개여부 : 공개 ☐ 부분공개 ☐ 비공개 ☐
※ 각종 회의, 행사 등에 한해서 표시

과장	박민규	051-888-6730
팀장	백승길	051-888-4643
담당자	송정훈	051-888-4642

부산시, 산업부 「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」 공모 최종 선정

- ◆ 산업부 2026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(스마트카) 공모과제 최종 선정
- ◆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54억 6천만 원(국비 200억 원, 시비 150억 원, 민간 104억 6천만 원)을 투입해 항만 자동화·무인화를 위한 3개 세부과제를 통합 추진
- ◆ 시, 부산항의 물류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,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

□ 부산시(시장 전재수)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(R&D) 사업인 「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」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됐다.

○ 이번 과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총괄 주관하며, (주)스마트엠투엠, 엠티알(주), (주)성우하이텍, 효성전기(주), 채비(주), (주)싸이버로지텍, (주)온메이커스, 웨어비(주), (주)에이스웍스코리아 등 지역 및 분야별 기관·기업이 참여한다.

□ 「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」 공모 선정으로 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2개월간 총 454억 6천만 원(국비 200억 원, 시비 150억 원, 민간 104억 6천만 원)을 투입해 항만 자동화·무인화를 위한 3개 세부과제를 통합 추진한다.

○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관해 부산항 신항에서 실증을 추진하며, 한국자동차연구원, (주)스마트엠투엠, 엠티알(주)이 각각 주관하는 3개 세부과제를 통해 인공지능(AI) 기반 통합관제·실증, 비가시 영역 인지 및 메가와트(MW)급 자동충전 등 항만 특화 자율주행, 24시간 무인 운영을 위한 전동화 자율이동로봇(AMR) 모빌리티 핵심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.

- **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항의 물류 운영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고,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·모빌리티 분야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.**
 - 특히 향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고도화된 물류 처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, ‘UAE 칼리파항 스마트항만 시스템 진출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항만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- **전재수 시장은 “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부산항의 첨단 스마트항만 도약과 지역 미래차 산업의 고도화를 견인하고,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”라며, “기술개발부터 실증, 사업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 항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**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명)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
- (사업기간) 2026~2029(4년)
- (사업위치) 부산항신항내 물류터미널(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) 일원
- (주요내용) V2X*·UWB** 융합 기반 항만 특화 정밀 측위 및 작업자장비·AMR*** 간 협력 인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 모빌리티 안전·협력 플랫폼 국산화 및 상용화

* V2X(차량사물통신) 주변 차량인프라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 위험을 예방하는 무선 통신 기술

** UWB(초광대역무선통신) 수센티미터(cm) 오차로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초정밀 무선 측위 기술

*** AMR(자율이동로봇) 외부 표식 없이 센서로 주변을 인식해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자율이동로봇

- (제1과제) 항만 모빌리티 무인 운용을 위한 항만 특화 자율주행 기술개발
- (제2과제) 전동화 기술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기술개발
- (제3과제)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통합관제 및 실증기술 개발
- (수행기관) 총괄 한국자동차연구원, 부산항만공사, 참여 성우하이텍, 효성전기 등 주요기업
- (총사업비) 454.6억원(국비 200, 시비 150, 민자 104.6)

□ 참고사진



【 세부과제별 개발 개념도 】



【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조감도 】